

데이비드 립튼 IMF 수석부총재, 글로벌 경제 위기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아시아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강조

국제통화기금(IMF)의 [데이비드 립튼](#)(David Lipton) 수석부총재는 오늘 IMF는 아시아에 대한 글로벌 위기의 영향을 축소하고 전세계적으로 보다 건전하고 견실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이 지역과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립튼 부총재는 작년 말에 IMF의 경영 직위에 임명된 후에 실시한 [첫 주요 강연](#)에서 홍콩에서 개최된 아시아 금융 포럼 참여자들에게 “현재 아시아의 경제는 견실하고 전망도 매우 좋습니다.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90년대에 아시아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고통스러운 상황이 없지 않았으나 과감하게 개혁을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의 다른 지역, 특히 유럽이 문제를 일으켜 아시아의 번영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는 유럽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시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까지도 수행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아시아는 중장기적으로 대처해야 할 자체적인 문제가 많습니다”라고 립튼 부총재는 경고했다. 또한 “아시아와 IMF는 과거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이 지역은 물론, 전세계가 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추진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립튼 부총재는 세계경제를 전망하면서, “경제 활동의 속도가 전세계적으로 약화되고 있고, 유럽과 전세계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그러나 그러나 현실을 비관적으로 보고 현재의 상황을 방지하기보다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노력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한 가지 좋은 측면은 저희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바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립튼 부총재는 말했다. 그러나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신뢰 붕괴, 성장 정체, 고용 감소와 같은 하방위험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상호 연결된 글로벌 경제에서는 어떤 국가나 지역도 이러한 대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특히 아시아에 해당됩니다”라고 립튼 부총재는 설명하면서, 무역과 금융에 대해 유럽과 긴밀하게 연계할 것을 권고했다.

립튼 부총재는 아시아가 2008년의 금융 위기를 벗어나면서 세계적으로 위상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아시아의 정책입안자들이 재정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약화된 완충장치를 재건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이 중앙은행의 목표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화 긴축을 잠시 중단하고, 은행 부문의 유동성과 자금 조달을 보장하고, 부채상환 만기일을 연장하고, 여신한도를 확보하고, 쌍무적으로 또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통화 스왑 협정을 추가로 확대함으로써 외부 취약점을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심각한 하방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아시아의 정책입안자들은 2008/2009년의 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립튼 부총재는 “아시아가 전진을 계속함에 따라, IMF는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확인하면서, “IMF는 아시아의 경험으로부터 저희가 현재 유럽을 포함하는 전 세계의 프로그램에 적용하고 있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IMF가 이 지역의 이익을 지원할 수 있다고 립튼 부총재가 선택한 2 가지 분야는 위기 방지를 위한 경제 및 금융 감시의 개선과 글로벌 금융 안전망의 강화이며, 여기에는 경제 파급효과와 거시금융의 연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위기 방관자들(금융위기로부터 선의의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대해 특별히 맞춤화된 예방적 여신한도 같은 새로운대출 도구가 포함된다. 또한 IMF의 재원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와 같은 역내 외환보유고 공유협정과 더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이와 동시에, 아시아는 IMF에서 더 많은 역할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립튼 부총재는 언급했다. 또한 IMF 내에서 아시아 회원국의 역할 증대가 중요하고, 이것은 최근의 여러 진전사항 중에서 특히 2010년에 합의된 쿼터 및 발언권 개혁 패키지에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서 신흥 아시아의 대표권이 4분의 1 일 이상 증가할 것이며, 일본과 중국이 각각 2대 및 3대 주주가 되었고 인도도 10대 주주 안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 IMF 경영팀의 40퍼센트가 아시아 국적자이고, IMF는 2012년 연차총회를 2012년 10월에 도쿄에서 개최한다. “아시아가 경제를 주도하는 지역으로 부상한 것을 감안할 때, IMF 내에서의 아시아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라고 립튼 부총재는 강조했다.

모든 국가들이 유럽을 주시하고 있는 이 때, “아시아와 이 기금은 협력을 개선하고 강화함으로써 이 지역과 전 세계에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립튼 부총재는 결론을 내렸다.